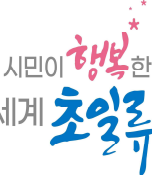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10월 12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재외동포 웰컴센터기획과	담당자	• 기획팀장 • 담당자		신소영 이정만	☎440-1521 ☎440-152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내년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인천 유치 나서

- 유정복 시장, 美 애너하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석해 인천 유치 협력 요청 -
- 인천의 비전, 투자 환경, 잠재력 등 소개하며 세계한상 경제활동 거점도시 알려 -

인천시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인천 유치에 본격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4박 6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 이 현지 시각 10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 ACC North에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21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2023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에 참석해 차기 대회의 인천 유치에 나섰다 밝혔다.

대회 개막식과 인천 홍보관, 환영 만찬 등에 참가한 유정복 시장은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들의 만나 내년 대회의 인천 개최 의사를 밝히고 협력을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제자유구역,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재외동

포청을 품은 인천이야말로 세계 한상들의 경제활동 거점도시로 차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의 최적지” 라고 강조하며 “한상네트워크가 인천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 인천은 세계 10대 도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투자 환경, 법률지원, 세제 혜택, 투자 기반시설(인프라) 정보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회장에 마련된 인천 홍보관에는 뷰티, 주방용품, 식품, 전자, 건축재 등 다양한 분야의 20여 개 인천기업이 참가해, 전 세계 한인 바이어 외에도 미 캘리포니아 중소기업발전센터(SBDC)를 통한 현지 대형 유통 바이어 및 무역상사 등과 수출 상담을 갖는다. 현지 참관객을 대상으로는 인천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는 등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20년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거주환경 조성,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첨단금융 및 미래 로봇과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유통과 물류, 관광·마이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미래도시 인천을 선보였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세계한상(韓商)대회’의 새로운 명칭이다. ‘세계한상대회’는 한민족 경제인의 결집을 위해 중국 화교기업인들의 ‘세계화상대회’를 벤치마킹해 2002년 발족했으며,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해 모국의 경제발전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만 개최되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제조업, 4차 산업, 스마트, 정보통신(IT), 금융, 환경, 문화 등으로 확대된 한상들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또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을 지향하며, 한상네트워크 저변 확대와 국가별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개최지를 확대해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며, 한미 양국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50여 개국 3천 명(한국 및 동포기업 1,500명, 미국기업 1,500명)이 참가하고, 관람객 3만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기업전시회 및 수출 상담, 포럼 및 문화공연,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관련 사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회 개막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및 내빈들과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인천홍보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관련된 추가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